

# 올해도 '마스크 수능'...11일 확진부터 별도 시험장으로

### 광주·전남교육청, 별도 시험장 9곳·병원 시험장 3곳 등 마련 도시락·아날로그 시계 등 준비 17일 오전 8시10분까지 입실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앞두고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은 수험생은 별도 시험장에서 고사를 치른다.

지난해 확진 수험생은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에서 시험을 봐야 했으나 올해는 광주·전남 교육청을 비롯한 각 교육청에서 마련한 별도 시험장에서 시험을 보게된다.

9일 광주·전남교육청에 따르면 오는 17일 치러지는 이번 수능부터는 일반 수험생과 격리대상 수험생이 응시하는 시험장이 따로 운영된다. 별도 시험장에서 시험을 보는 대상은 오는 11일부터 코로나19 확진 격리 통보를 받은 수험생이다. 이들은 교육청의 안내에 따라 별도 시험장에서 시험을 볼 수 있다.

시교육청은 이를 위해 일반시험장 38개교, 별도 시험장 2개교, 예비 시험장 1개교, 병원시험장 1곳을 배정했다. 확진자 중 입원치료를 받는 위중증 수험생은 지정 병원인 남구 빛고을 전담병원에서 응시할 수 있다.

도교육청도 확진·격리 수험생을 위해 7곳의 별도 시험장을 마련했고, 병원 입원 확진자를 위해서는 지역거점 병원 2곳에 8개 병상을 확보했다.

일반 시험실에서 시험을 보는 수험생은 벨브형과 방사형 마스크를 제외한 마스크를 착용할 수 있다. 일반 마스크도 착용이 가능하지만, KF94, KF80, KF-AD, 수술용 마스크 착용이 권장된다. 분리 시험실의 수험생은 KF80 등급 이상을 착용하되, KF94 등급 이상을 착용하는 것이 권장된다.

별도 시험장의 수험생은 KF94 등급 이상을 착용해야 하며, 병원 시험장의 경우 병원 지침에 따라 달라진다.

점심시간에는 시험장에서 지급받은 종이 칸막이를 자신의 책상에 스스로 설치한 후 식사가 가능하다. 개인 도시락을 준비해야 하며, 식사 중에는 다른 사람과 함께 식사하거나 이야기를 나누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시험장에는 휴대전화와 스마트워치, 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이어폰, 태블릿 PC 등 모든 전자기기를 두고 와야 한다.

전자기기를 가지고 온 경우에는 1교시 시작 전에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제출해야 한다. 제출하지 않고 적발되면 부정행위로 처리된다.

시험 중 휴대가 가능한 물품은 신분증, 수험표,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 흰색 수정테이프, 흑색연필, 지우개, 샤프심(흑색 0.5mm), 전자 기능이 없는 아날로그 시계, 마스크다.

4교시 탐구영역 시간에는 본인이 선택한 과목을 순서대로 응시해야 한다. 해당 선택 과목의 문제지만 올려놓고 풀어야 하며, 동시에 2과목 문제지를 올리거나 풀 경우 부정행위로 처리된다. 제2선택 과목 시간에 제1선택 과목의 답안을 적거나 수정해도 부정행위로 처리된다 유의해야 한다.

수능 하루 전 16일에 열리는 예비소집에는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 격리대상 수험생의 경우에는 형제자매나 친인척, 직계가족, 담임교사 등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가 수험표를 대리 수령할 수 있다.

시험 당일에는 오전 6시 30분부터 시험장에 들어갈 수 있으며 오전 8시 10분까지 입실을 마쳐야 한다. 수험표와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 지참은 필수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광주시 북구 상사선별진료소에 9일 수능 수험생 관련 안내문이 붙어있다. 11일 이후 수험생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을 경우 즉시 관할 교육청에 알려야 한다. /나명주기자mjna@kwangju.co.kr

## '여수산단 사립학교, 공립화해야'

### 주민들 "산단 자녀로 입학 제한·원거리 통학 불편"...법인 논의 중

여수국가산단 입주 기업의 출원으로 설립된 여수 여도초등학교의 공립화 전환을 요구하는 여론이 일고 있다.

공립화 요구에 대해 학교 법인인 여도학원도 최근 관련 논의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9일 여수교육지원청 등에 따르면 여도초 신입생 모집 공개 추정일인 지난 4일 학교 주변 곳곳에는 인근 주민 자녀의 입학을 요구하는 현수막이 내걸렸다.

인근 주민들은 자녀들이 인접한 여도초를 놔두고

4km 떨어진 여천초까지 원거리 통학을 해야한다며 여도초에 다니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등·하교 시간에는 통학 차량이 한데 얽히면서 일대 교통이 마비되고 교통사고 위험까지 있다는 주장이다.

여수산단 입주 기업 자녀들로 입학이 제한돼 불편을 겪고 있어 인근 주민 자녀들도 다닐 수 있도록 공립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1980년 여수산단 9개 기업의 출원으로 설립된 여도초는 산단 자녀를 우선 입학시키고 있다. 인근 주민들이 자녀들의 입학을 지속해서 요구해

2011년부터 일부 입학이 허용됐지만, 소수에 그친다.

내년도 신입생 모집 결과 산단 직원 자녀는 지원자 84명 중 80명이 합격했지만, 인근 주민 자녀는 28명 모집에 47명이 지원했다. 인근에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면서 입학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주민들의 요구와 함께 '대기업 귀족학교'라는 지적도 제기돼 공립화에 대한 공감대도 확산하고 있다. 산단 기업들도 통학 불편, 교육권 차별 해소 등을 위해 공립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데 공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수교육지원청 관계자는 "공립화를 하려면 학교 법인의 결정이 선행돼야 한다"며 "학교 법인이 공립화를 결정하면 교육청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여수=김창화 기자·동부취재본부장 chkim@

## 불법 배달대행 외국인유학생 무더기 적발

### 광주출입국사무소, 베트남 등 32명...200만~1000만원 범칙금

불법으로 배달대행 라이더로 활동한 유학생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최근 배달대행 라이더로 불법취업한 외국인 유학생 등을 집중 단속한 결과 총 32명을 적발해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범칙금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이들은 대부분인 베트남 유학생이고 일부는 우즈베키스탄 출신으로 유학(D-2) 또는 구직(D-10) 체류자격 소지자로 광주, 전남지역 대학에 다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취업할 경우 허가를 받아 비자를 변경해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오토바이 등 차량을 이용해 불법 배달대행 라이더로 활동한 것으로 확인됐다.

출입국사무소는 배달대행업은 개인사업자로 신청해야 하는 만큼 비자변경이 엄격하다는 점에서 이들이 허가없이 불법취업한 것으로 보고있다.

코로나19로 배달대행업이 호황을 누리면서 라이더 수입이 쏠쏠하다 소문에 외국인 유학생들이 대거 배달대행에 나선 것이다.

조사과정에서 일부 유학생은 오토바이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증도 소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박인순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조사과장은 "무면허 배달대행을 하는 외국인들로 인해 교통사고, 뺑소니 등 심각한 국민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만큼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hh@kwangju.co.kr

## 구직단념 청년 취업의지 되살린다

### 광주노동청,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취업의지가 꺾인 광주지역 청년들에게 맞춤형 구직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청년들의 구직의욕 고취 및 취업 촉진을 위한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청년도전지원사업은 구직단념 청년(6개월 이상 취업 및 교육·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고 구직단념 문답표 21점 이상인 경우)들을 위해 1:1 상담 및 맞춤형 프로그램(4주 이상)을 제공하고, 총 40시간

중 32시간 이상 참여한 청년에게 실비 2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 대상은 광주시에 거주하는 만18~39세 사이의 구직단념청년, 자립준비청년, 청소년쉼터 입·퇴소청년 등이다.

사업운영기관은 청년센터 아카이브(광주 청년센터), (사)지역고용정책연구원(북구 청년센터)으로, 광주 청년센터는 11월 13일까지, 북구 청년센터는 11월 30일까지 프로그램 참여자를 모집한다.

신청 절차 등 자세한 내용은 온라인 홈페이지 또는 모집기관에 문의하면 된다.

/천홍희 기자 strong@kwangju.co.kr

## 국가폭력·저항의 무기 '총'

### 5·18학술대회 11일 개최

5·18민주화운동 당시 '국가폭력'의 무기이자 '시민들의 저항'의 무기로 활용된 '총'을 주제로 한 학술대회가 열린다.

5·18기념재단은 오는 11일 오전 10시부터 5·18 기념문화센터 대동홀에서 5·18민주화운동 42주년을 기념해 "5·18과 총"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는 총을 주제로 국가폭력과 지역주의, 평화권과 저항권을 탐색하고 항쟁공동체의 재해석을 시도하고, 총을 통해 5·18의 서사와 장면을 다시 살펴보고자 기획됐다. /유연재 기자 yjyou@

## 전남대 '100원 아침밥' 제공...농업인의 날 11일까지

전남대학교가 농업인의 날(11월 11일)을 맞아 11일까지 '100원의 아침밥'을 학생들에게 제공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우리 쌀 소비를 촉진하고, 농업인 노고에 감사하는 마음을 되새기기 위해 마련됐다.

전남대 광주캠퍼스 제1학생마루 식당, 화순캠퍼스 퍼스 여미생 식당, 여수캠퍼스 학생교직원 식당 등 3곳 100원으로 아침밥을 즐길 수 있다.

다만 급식 인원은 예산 한계로 하루 325명씩

으로 제한된다.

100원의 아침밥은 메뉴는 전남대 실습 농지에서 올해 수확한 햅쌀로 지은 밥을 비롯해 떡볶이, 떡국, 가래떡, 밥버거, 김밥 등이다.

정성택 전남대 총장은 "2015년부터 국립대학 최초로 '천원의 아침밥'을 제공해 온 우리 대학은 국가 지원예산이 줄어들더라도 자체 예산을 최대한 활용해 '천원의 아침밥'을 계속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